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

2015. 9. 16.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의안번호	2015 - 3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5년 9월 16일 (수요일) 11:00 ~ 12:00 ○ 장 소 : 중구보건소 5층 강당
참석위원	○ 위 원 장 : 보건소장 ○ 내부위원 : 변창윤의원, 재무과장, 위생과장 ○ 외부위원 : 김영주, 정관희, 김찬숙 ○ 간 사 : 위생기획팀장
회의 진행순서	1. 개회선언 2. 참석위원 소개 3. 위원장님 인사말씀 4. 심의안건 상정 및 토의 5. 폐회선언
상정안건	○ 201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2015년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안)
심의결과	원안가결

〈발언요지〉

-간사 계획(안) 설명-

(김영주 위원)

융자금 이자율이 2%인데 지금은 은행에서도 대출 이자가 2%대라 기금 융자를 받을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다.

(변창윤 위원)

기금의 목적이 외식업체에 대한 지원이니 융자 대상 업소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10년 이상 운영업소에 인센티브를 주어 우선적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게 어떨까.

(위생과장)

금리를 낮추고 자격요건을 완화하기에는 융자업무가 은행의 여신대출규정을 따르고 있기에 개선에 어려움이 많다.

(김영주 위원)

정부에서 메르스 유행 후에 천억원의 외식업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하였는데 금방 소진되었다. 이는 도움이 필요한 실질적인 영세업소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대출요건이 갖춰진 사람들이 혜택을 받은 것이다. 실질적인 영세업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 제공 등의 용자요건을 완화해 주고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원장)

몇 년 전에 용자예산을 5억에서 8억으로 증액하면서 대규모 음식점 뿐 만 아니라 작은 면적의 식당에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은행과 협의하여 구비서류도 최소한으로 줄였다.

최근 몇 년 간 꾸준히 지적받는 부분이 중구에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음식점의 낙후된 시설인데 이는 업주들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개선의 주체는 업주 본인이 되어야하기에 시설개선을 원하는 식당을 협회에서 추천해주시면 해결방안을 같이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김영주 위원)

시설개선자금을 용자받을 때도 용자금을 업주에게 주지 않고 시설업자에게 간다. 빌리는 입장에서는 영수증 첨부 등 서류가 복잡하는데다가 돈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으니 짹짹한 기분이 든다.

(위생과장)

업자에게 용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위한 것인데, 관련 법령이나 규칙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시정하도록 하겠다.

(변창윤 위원)

예산안 중 이천만원 책정된 협회 보조금은 어디에 쓰이는가.

(김영주 위원)

이천만원의 80%는 모범업소 등 음식점 지원에 쓰이고 20%는 선진음식체험을 하고 있다.

(변창윤 위원)

중구는 관광객과 오래된 식당이 많은데 관광 활성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는 없는가. 요즘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식당 운영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으니 협회와 보건소, 의회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김영주 위원)

중구는 관광객이 많이 오지만 대부분 중국관광객의 패키지 여행의 일부인 경우가 많아서 맛있고 위생적인 식당보다는 여행금액에 맞춘 저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다. 그런 식당은 저가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 협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행사에 건의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위원장)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음. 끝.